



주간통일정세 2013-46(2013.11.11~11.1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3-46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과학자·기술자대회 개최... "강성국가 역군" 강조(종합)(11/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과학자·기술자대회를 열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과학자·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됐다"라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도당 책임비서들, 공로 있는 과학자·기술자들 등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와 기념사진(1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4일 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기념촬영에 앞서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치하한 뒤 "과학자·기술자들이 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감을 자각하고 과학기술성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어머니날' 맞아 여성들에 충성심 독려(종합)(1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1면에 '선군시대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강성조선의 미래를 꽃피워나가자란 제목의 사설을 게재, "세상에는 어머니가 많지만, 조선의 어머니들처럼 강직하고 충의심(충성심과 의리) 깊고 헌신적인 어머니는 없다"고 독려함.
  - 또한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어나가는 데서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라며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들(김일성 생모 강반석, 김정일 생모 김정숙 지칭)의 혁명생애와 풍모를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우상화에 색깔 입히기... '컬러 석고상' 등장(11/17,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최고지도자 우상화 작업에 시각적 이미지를 부쩍 신경쓰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최근 완공한 '위티파크'인 평양 문수물놀이장을



소개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이곳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연색 석고입상(立像)'을 세웠다고 전함.

● **北 김정은, 軍 식료공장 찾아 '어머니날' 축하(1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6일 '어머니날'을 맞아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인민군 산하 제354호 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연 건축면적이 6천900여㎡에 달하는 이 공장이 사탕·과자와 빵을 대량 생산해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식료가공공장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장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려는 과업을 주고 생산에 필요한 첨단설비를 보내줬다"고 소개함.

■ **김정은동향**

- 11/11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제4차 적공일꾼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1.11,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김수길, 럽철성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 시리아 등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黨창건일'에 보내온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11.11, 중통)
- 11/12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11월2일공장 현지지도(11.12, 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황병서(당중앙위 부부장) 동행
- 11/13 김정은 黨 제1비서, 11.13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시리아 시정운동 43돌" 즈음 '北-시리아 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 강조 축전(11.13, 중통·중방)
  - 김정은 "혁명사적 사업과 전국의 먼거리 의료봉사체계를 세우는데 기여"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1.14, 중방)
- 11/14 김정은 黨 제1비서, 11.14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1.14, 중통)
  - 박봉주, 최태복, 오극렬, 광범기, 문경덕, 로두철, 김용진, 한광복과 도당 책임비서들 참가
- 11/16,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현지지도 및 "최고사령관 감사" 전달(11.16, 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서홍찬(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황병서(黨 부부장) 등 동행
  - 김정은, 새로 조성되는 만경봉체육단 축구훈련장 시찰(11.16, 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리영길(軍 총참모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한광상(黨 부장), 황병서·마원춘(黨 부부장) 등 동행



#### ■ 기타 (대내 정치)

- 北 노동당 대표단 단장(리영철 당중앙위 부부장), 11.8 '제15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포르투갈)'에서 '사회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승리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연설(11.10, 중통·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건설장 현지(11.11, 중통·평방)
  - 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할 데 대하여 언급
-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11.13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1.13, 중방·평방·중통)
  - 주석단 : 박봉주(보고), 최태복(김정은 저작 '과학기술 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전달), 오극렬, 광범기, 문경덕, 로두철, 태종수, 김용진 등
  -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허택(전력공업성 부상), 태종수(함경남도 黨 책임비서), 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 토론 및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전체 과학자·기술자들은 김정은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건설 대전을 과학과 기술로 힘차게 추동하는 참된 혁명가, 애국자가 되자'고 호소(11.13, 중방·평방·중통/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 생일축하 모임, 11.12 청류관에서 진행 및 한광복(黨 부장)·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 참가(11.13, 중통·중방)

#### 나. 경제

##### ● 北 '잠업법' 제정... "양잠산업 법제화로 경공업 발전"(11/17, 연합뉴스; 민주조선)

-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1월 8일자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빵발 조성과 관리, 누에고치 생산과 수매 등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등을 담은 4장 44조의 잠업법을 채택함.
- 잠업법은 법의 '사명'이 양잠산업의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힘.

#### 다. 군사

##### ● 北 김정은, 軍 심리전부문 장병들과 기념사진(11/11,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4차 적공일꾼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공일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건 말건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 제도 옹위의 전초



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다"라고 치하했다고 방송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들이 "선군혁명 위업의 최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자기들 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北 김정은, 軍 식품가공공장 시찰(1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이 공장이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47년 5월 설립됐으며 "과자, 사탕, 빵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을 생산해 군인들에게 공급해주는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공장)"라고 소개함.

● **北 서흥찬 軍 상장,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승진 확인(11/17,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 대대적인 군부 물갈이가 이뤄진 가운데 소장파인 서흥찬 군 상장(우리의 중장)이 국방부 차관격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354호 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한 서흥찬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소개함.

라. 사회·문화

● **北, 중국어 자동번역프로그램 개발(11/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4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중-조(북) 기계번역프로그램'이 출품돼 관심이 쏠렸다고 11일 보도함.
-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 자료들을 컴퓨터를 통해 북한말로 자동번역하는 프로그램으로, '혼합형 다엔진 처리기술'을 이용해 번역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 빠르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고려항공 새 승무원 유니폼 눈길... '여성미' 강조(11/11, 연합뉴스)**

-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여행사'가 공식 페이스북에 새 유니폼을 입은 고려항공 여승무원의 사진을 게재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새 유니폼은 과거의 유니폼과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이 매우 세련된 것이 특징이며 최근까지 북한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은 고려항공 여승무원들의 유니폼은 위아래 모두 붉은색인데다 평범한 디자인이었다고 전함.

● **북한 쌍둥이자매 싱가포르 하프마라톤서 1,2위(11/11, 연합뉴스)**

- 북한 여자 마라톤의 기대주인 김혜경·혜송(20) 쌍둥이 자매가 10일 싱



가포르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고 싱가포르 언론을 인용해 1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언론에 따르면 김혜경은 10일 열린 '2013 그레이트 이스턴 여자 마라톤' 대회 하프 마라톤(21.1km) 부문에서 1시간 15분 59초로 우승을 거머쥐었음.

● 北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1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 개발하는 개성 첨단기술 경제특구가 공사에 들어가며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을 개성시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앞서 지난달 통신은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이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에 합작하는 방안을 북한의 유관기관들과 협의했으며 곧 이행에 착수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으며 개성첨단기술개발구를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로 이름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 北 과학원 버섯연구소 '맹활약...기술보급에 박차'(11/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중앙버섯연구소에서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각지에서 건설되는 버섯공장에 대한 기술지도서 작성과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규모의 강습을 통해 새 재배기술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이 연구소에서는 이달 초부터 각 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버섯재배기술 강습이 열리고 있으며 연구소 준공 이후 '버섯재배 기술 문답집' 등 버섯 관련 도서도 새로 집필해 버섯재배 단위들에 배포했음.

● 北 '어머니 날' 분위기 띄우기..."기념품점 복적"(11/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올해 제정 2년째를 맞는 '어머니 날(11월16일)'을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고 13일부터 기념상품 출시 소식과 손님들로 활기를 띤 기념품 상점의 풍경을 잇달아 보도하기 시작함.
- 중앙방송은 14일 '어머니 날' 축하장을 판매하는 평양역 앞 기념품 상점이 많은 손님으로 흥성이고 있다며 점원과 고객의 들뜬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전함.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김父子 '태양상 모자이크벽화' 준공식, 여러 단위들에서 진행 (11.11, 중통)
  - 강원도 문천시, 함경남도 리원군, 장진군, 부전군, 허천군, 요덕군, 평안북도 동창군
  -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52.11.13, 내각 결정 제203호) 61주년 즈음 김일성의 '이민위천' 칭송 및 "사회주의 보건제도 우월성" 선전 (11.13, 평방/전반적 무상치료제 · 전화의 불길 속에서 실시된 전반적 무상치료제)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北, 아시아국과 '축구 외교' 활발... "대외관계 과시" (1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북한 4·25체육단 남자 축구팀과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전날 평양에서 열려 4·25팀이 2대0으로 이겼다고 전함.
  - 양국 간 축구경기에 앞서 싯다르타 다누수브로토 인도네시아 국민협회의 회(MPR · 국회 상원 격) 의장 등이 이달 1~4일 방북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만났고, 지난달 21~23일에는 마르티 나탈레기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박 의춘 외무상과 회담함.
- 러시아, 北에 의료기구 · 의약품 지원(11/11,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제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평양에서 러시아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무상으로 기증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인계인수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전하며 여기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북한 주재 WHO 대표가 참석했다"고 덧붙임.
- 北 · 러시아, 노동자 파견절차 간소화 회의 개최(11/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가 12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 주에서 당국간 실무회의를 열어 노동자들의 상호 파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RFA는 아무르주 정부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상대방 국가 국민의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실



무그룹 제4차 회의를 한다고 전함.

- **英 적십자, 내년 북한에 48만弗 지원 계획(11/12,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적십자사가 식수위생 사업 등을 위해 내년 북한에 48만 달러(약 5억 1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영국 적십자사의 지원금은 산지에 나무를 심고 상수도망 개선 등을 통해 식수 위생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도 이를 위해 40만 달러(약 4억2천만 원)를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북한 민동산에 묘목 73만 5천 그루를 심도록 도왔음.
- **국제적십자, 올해 北 수해지원사업 마무리(11/13,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올해 북한 홍수 피해지역에서 벌여온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IFRC는 지난여름 북한에서 장마로 피해가 나자 수재민들에게 이불과 주방 기기, 수질 정화제 등 각종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홍수 발생 시 대응 교육을 하는 등 지원사업을 벌였으며 이달 초 이를 마무리했음.
- **화교 자본, 개성 과학기술특구 개발에 참여(종합)(11/13,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건설사업에 참여한 평화경제개발그룹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이 그룹의 회장격인 대표는 장수남으로, 사장격인 총경리는 '허택승'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13일 보도함.
  - 신문은 앞서 조선중앙TV가 11일 내보낸 개발구 착공식 영상에서 장수남 대표가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장 대표는 북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투자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이는 허택승 총경리는 중국계 싱가포르 또는 홍콩계 인물로 추정됨.
- **北 김영남, 필리핀 대통령에 태풍 피해 위로전문(1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위로 전문에서 "최근 귀국의 여러 지역에 들이닥친 강한 태풍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커다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해 당신과 귀국 정부, 인민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힘.
- **北외무성 "北조종사 시리아 내전 참전보도는 헛소문"(11/14,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4일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반군 공습에 가담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적대세력들이 퍼뜨리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최근 일부 외신은 우리가 시리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반란군에 대한



공습에 우리 비행사들이 직접 참가하고 있다는 등의 각종 허위·날조자료를 유포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 올해 아세안과 인적교류 강화..."외교 다각화"(11/14,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편향된 외교를 탈피하고자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당·정·군이 올들어 최근까지 아세안 회원국들과 상호방문 교류한 횟수는 15차례에 달함.
  
- **獨 민간단체, 北에 2년째 유기농법 전수(1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독일의 민간단체 유기농연구소(FiBL)가 지난해부터 2년째 북한에서 유기농법 전수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이 단체는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 50만 유로를 지원받아 평양 인근 협동연구농장에서 북한 농업지도자 20여 명에게 유기농법을 전수하고 있음.
  
- **北 노동신문 "美 군부의 '북 위협국가' 발언은 궤변"(1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미국 군부 수뇌들이 최근 잇달아 북한을 '위협국가'라고 지적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강도적 논리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지난 5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13 세계안보포럼'에서 북한과 이란을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새뮤얼 로클리어 미 태평양군사령관도 7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북한이 동북아와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 사실을 거론, 이같이 말함..
  
- **北신문 "을사조약은 무효...日 역사의 심판 받을 것"(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조약' 체결 108년을 맞아 일본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함.
  - 신문은 이날 '일제의 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을사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며 이 같이 밝힘.
  - 또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과거 죄악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일본 반동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제에 대한 증오와 울분으로 가슴 끓이고 있는 우리 인민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백 배, 천 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함.



- 기타 (대외 일반)
  - 평화경제개발그룹, 11.11 개성에서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건설' 착공식 진행 및 장수남(평화경제개발그룹 대표)·'허택쑹'(그룹 총경리) 등 참가(11.13,중통)
  - 駐中 기니 대사는 착공식에서 '개발구 건설이 北과 이웃 나라들의 전면적 협조와 신뢰구축, 경제장성과 무역 및 기타 교류를 촉진시키게 될 것' 강조

나. 6자회담(북핵)

- 北 신문 "우리에게 '비핵화 사전조치' 먼저 기대말라"(1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미국의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사전조치란 신기루나 같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얼마 전 미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우리의 대답은 미국이 우리에게서 그 어떤 사전조치가 먼저 취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美 국무성대변인의 6자회담 관련 '북핵 발언'(비핵화 사전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등)에 대해 '행동대 행동은 핵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11.11,중통·노동신문·중방·평방/사전조치란 신기루나 같다)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신문 "주민 탈북 유도하는 南당국 징벌" 거듭 위협(1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남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징벌'을 거듭 다짐함을 밝힘.
  - 신문은 '단호히 징벌해야 할 인권범죄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들의 유인납치행위와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대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그에 가담한 자들과 주모자, 공범자들을 모조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해나서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조평통, 朴대통령 유럽순방 발언 비난(11/12,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기간 북한에 핵 포기과 인권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반공화국 대결 망발"이라고 맹비난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또다시 박 대통령을 '박근혜'로 지칭하며 이 같이 비난했으며 이번 발언으로 앞서 박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순전히 위선이었으며 그의 속통에는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흥심만 들어차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함.
- **北신문, 김 국방 발언 비난... "멸망할 쪽은 南"(1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남북이 전쟁하면 북한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북침 전쟁 선언"이라며 전쟁이 나면 멸망할 쪽은 오히려 한국이라고 위협함.
  - 신문은 '멸망을 재촉하는 호전광'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실수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북침전쟁 선언"이라며 한국이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그 순간 도발자들은 모조리 괴멸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함.
- **北 "南 '원칙론'은 남북관계 성격 무시한 대결정책"(1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남북관계의 통일지향적 성격을 무시한 대결정책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의 원칙고수론을 해부함'이라는 제목의 '논평'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는 데 대해 "북과 남 사이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적 기준과 규범이 그대로 통용될 수 없다"고 밝힘.
- **北,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비판 책자 발간(11/14, 연합뉴스)**
  -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우리민족끼리'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이 매체에 따르면 평양출판사에서는 최근 '원칙론을 진단한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출판했으며 이 책자는 "보수집권세력은 남북관계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관계로 뜯어고쳐 북과 대등한 관계에서 회담도 하고 북의 변화 유도를 기본목표로 한다는 '대북원칙론'을 내세웠다"라며 이는 "동족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대결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비난함.
- **北 조평통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백지화해야"(1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정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단절계획, 대결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2차 기본계획의 내용에 '북핵문제 해결', '북한인권법 제정', '탈북자 지원' 등이 명시된 것은 "임기 전 기간 우리



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동족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국방위, 차대통령 유럽순방 발언 원색비난(11/14,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이 북한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한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맹비난하며 보도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중앙방송에 따르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낸 박근혜의 떠돌이 행각을 단죄한다'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 "국방위 정책국은 이 기회에 박근혜와 그 패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우리의 핵과 병진노선에 대해 더 이상 함부로 재잘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北 노동신문, 진보당 해산청구 비난... "정치모략"(1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정부가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대해 "통치 위기를 모면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 모략사건"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진보세력 말살을 노린 정치적 모략'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정부의 이번 정당해산 청구와 이에 영향을 미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같이 주장함.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11.11 우리 대통령의 유럽순방기간 對北발언(정상회담, 핵폐기, 인권 등) 관련 중통기자 질의 대답을 통해 '정상회담 발언은 위선이었으며, 우리(北)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흥심만 들 어차 있다'고 실명 거론 비난(11.11, 중통)
- 【北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11.14)】 대통령 서유럽 순방시 對北 발언 관련 '핵 포기'와 '미사일 폐기'는 자주와 존엄을 내던지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라는 것과 다름없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은 사대매국노의 전철을 밟으라는 것이며, 민족반역의 길에 들어서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라며 실명거론 원색 비난 및 경고(11.15, 중통·중방/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낸 박○○의 떠돌이행각을 단죄한다)
-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 우리의 對北 원칙론에 대해 '△6.15를 전면부정한 반통일론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체제대결론 △전쟁을 추구하는 동족대결론, 북침전쟁론'이라고 비난하며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떠난 다른 원칙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11.14, 중통·노동신문·중방/남조선 당국의 원칙 고수론을 해부함)
  - '북남관계 파국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題下로도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고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며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용납 못할 대결전쟁론'이라고 비난(11.14, 평방)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1호(11.14)】 우리 정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관련 "단절계획이며 대결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하고 동족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 (11.14, 중통·평방)
- 【중통사 논평】 '日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두둔, 인정한 것은 '전범죄'에 대한 묵인인 동시에 재침야망에 대한 공공연한 인정이고 침략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자청해 나서는 역적행위'라고 지속 '정부' 비난(11.14, 중통/조선 사람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중통 논평(11.15)】 우리 軍의 美 첨단무기 구입 계획(패트리엇 미사일,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에 대해 '한반도 지역정세를 위태롭게 하는 동족대결 책동'이며 '상전의 아시아제패 책동에 머슴질 하는 쓸개 빠진 망둥'이라고 비난(11.15, 중통/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호전적 망둥)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평양 직접 거론 한러 공동성명, 북핵 폐기 압박>(11/13, 연합뉴스)
  -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1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는 표현으로 북한을 확실하게 적시했음.
  - 이는 올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과 대비되며, 과거 한러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비교해서도 진전된 언급임.
  - 과거 특수 관계를 이유로 중국과 함께 북한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러시아가 평양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며, 러시아가 구소련 때부터 미국과 함께 비확산 문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전통이 있다는 점도 표현의 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음.
  
- <신선호 北유엔대사 "6자회담 잘될 것으로 생각">(11/13, 연합뉴스)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12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자회담은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음.
  - 특히 신 대사를 비롯한 북한측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그간 보여온 경직된 태도와는 달리 이날에는 길게 답하지는 않았지만 종전과는 다소 다른 부드러운 자세를 보였음.
  - 앞서 제68차 유엔총회 각국 대표 기조연설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1일 북한 대표로 연설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연설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났으나 남북 이산가족, 6자회담 재개, 북한 핵문제 등 현안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음.
  
- <빅터 차 "北, 이르면 연말 4차 핵실험 가능성">(11/14, 연합뉴스)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외교적 협상이 없다면 북한이 올해 겨울이나 내년 봄 즈음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6자 회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입장차가 너무 커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북한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회담 재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음.



- 또한 "지난 9월 베를린과 런던에서 열린 미북 간 트랙2 협상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 미국에 이어 북한을 다녀온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의 활동도 개인적 플레이의 성격이 강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한편, 차 연구원은 특히 "겉으로는 이란 핵과 북한 핵 문제가 다른 것처럼 비쳐지지만 이란 핵협상이 북핵 이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음.
- <中전문가 "한반도 핵문제, 한 국가의 문제는 아니다">(11/14, 연합뉴스)
- 아산정책연구원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아산 베이징포럼 2013'에서 친야 칭 중국외교학원 상무부원장은 "중국은 왜 북핵문제를 한반도 핵문제로 이야기하는가"라는 청중의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는 어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 친 부원장의 답변은 북핵문제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 '북한 비핵화'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중국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이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현재의 한중관계에 대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음.
- <고위당국자 "6자회담 재개, 시간 걸릴 것">(11/15,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이 언제 열리느냐는 것은 시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건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굳이 시기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음.
  - 이어 그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조건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6자가 모두 같다. 조건의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차가 있는데 이를 좁히는 작업을 의장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관련국이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최근 남·북·미·중간의 연쇄적인 접촉 과정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최근 방북 과정에서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바, 이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간에도 앞으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미국 "북한도 대화재개 전제조건 알 것">(11/16, 연합뉴스)
- 쟈 스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도 자신들이 회담 재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라면서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음.



- 최근 북한이 조건 없는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현 상태에서는 대화가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임.
- 이어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를 악용해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중일 3국을 방문해 각국 대표들과 협의의 지속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음.

#### 나. 미·북 관계

- <北연구원 "경제개발 위해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11/13,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황익환 연구원은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주최로 중국 텐진에서 열린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 국제연구토론회'에 참석,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지역의 안보와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미국과 그 꼭두각시 정권들이 끊임없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난했으며, 북한의 경제 개발 노력을 거듭 부각했음.
  - 이에 앞서 12일 열린 첫날 토론회에서 같은 연구원의 김대길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터지면 핵파국이 벌어질 것이고, 이 파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빨아들일 것"이라고 위협하며 비핵화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미국과 한국, 일본 측 태도를 비난했음.
  - 북한이 이미 핵개발에 성공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크게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다. 중·북 관계

- <신압록강대교 상판 설치 마무리...다리 형태 완성>(11/16,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압록강대교의 교량 구간의 마지막 상판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16일 다리 형태가 완성됐음.
  - 중국은 2007년 초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 당시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처음으로 공식 제의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올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의 사건들 속에서도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됐음.
  - 신압록강대교는 포장과 접속도로 공사 등의 부대공사를 거쳐 내년 9월 개통될 예정이며, 중국은 신압록강대교와 연결되는 지점에 총사업비 20억 위안(약3천500억 원) 규모의 새 도로통상구 건설도 추진하고 있음.



### 라. 일·북 관계

- <메구미 납북 36주년...일본, 납치 문제 해결 강조>(11/16, VOA)
  - 지난 15일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알려진 요코다 메구미가 납치된 지 36년이 됐다.
  - 이에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 뿐 아니라 납치문제 담당상인 자신과 일본 국민 모두가 아베 정부 아래서 메구미 씨를 반드시 되찾아 온다는 데 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납치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 한편,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일본인 납북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중 5명만 일본에 돌려보내졌으며, 지난 해 일본 정부는 4년 만에 북한과 협의를 가진 뒤 국장급 본회담을 열었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추가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바 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올브라이트 "한미일 3자대화 중요...서로 오해 없어야">(11/14, 연합뉴스)
  -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14일 국립외교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신뢰외교'를 주제로 진행된 국제회의에서 "미국은 동맹국, 특히 한미일 3자 구도간 대화의 중요성을 계속 견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며 회의의 주제처럼 협력이 가능하려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고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는 또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견고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정책으로 6자회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더욱더 대화가 있으려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 대변인인 푸잉 전 중국 외교부부부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 적극 지지를 표시했으며,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분모를 찾아 합의 도출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나. 한·중 관계

- <조태용 본부장, 우다웨이 대표와 대화재개 조건 협의>(11/14, 연합뉴스)
  - 한국 6자회담 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6자회담 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재개 조건 등을 협의한 후 14일 귀국했다.
  - 조 본부장과 우다웨이 대표는 6자회담 재개조건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려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



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두 대표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내용과 우다웨이의 방북 성과를 서로 설명한 것으로 보임.

● <韓中, 18일 김장수-양제츠 대화·19일 인문공동위 개최>(11/14, 연합뉴스)

- 외교부는 한국과 중국이 1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를 가지는데 이어 19일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 이를 위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 정부 대표간이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 북핵 문제,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는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문제 등을 포함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우리 측은 중국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임.

다. 한·일 관계

● <아베측근 "정상회담 미개최, 한국 국내사정 탓">(11/11,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은 10일 밤 BS-TBS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과 사이 좋게 지내면 한국과 중국 지도부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상대방의 사정으로 정상회담을 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이러한 세코 부장관의 의견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 지도부의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임.
- 한편, 세코 부장관은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면 총리는 언제든지 중국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韓日관계 좋은 상황 아니지만...> 고위경제協열려(11/11,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는 11일 일본 도쿄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차관보급 한일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회복·발전시킬지 논의를 나눴음.
-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최근 한국 법원에서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언급, 한국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우리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일본 측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속히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잠정 조치임을 강조, 안전성 우려를 없애도록 일본의 노력을 요구했음.
- 양국은 이러한 갈등과 무관하게 관광산업, 양국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음.

- <日관방장관,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에 부정적 입장>(11/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한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
  -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입장과 노력을 한국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다"면서 "일본측의 이러한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음.
  -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끈기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日誌 보도 파문일듯...금융제재 통한 '征韓전략도 제시'>(11/14, 연합뉴스)
  - 일본의 강경 보수 잡지인 주간문춘은 14일 발매된 잡지기사에서 아베 총리 주변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음.
  - 또한 주간문춘은 한국과의 대립으로 아베 총리 측근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금융제재 등 새로운 차원의 정한전략도 제시했음.
  - 여야는 아베 총리가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고 망언을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 한목소리로 비난했음.
- <아베, 한미일 협력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11/15,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베 총리는 한일협력위원회 합동총회에 참석,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며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생각하면 한미일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음.
  -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밀월'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한중관계 강화에 대해 견제의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됨.
  - 이로써 아베 총리는 13일 이병기 주일대사, 14일 한일협력위원회 한국 측 대표단을 각각 만나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이어 사흘 연속으로 한국 관련 일정을 소화했으며, 이는 양국 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화해의 제스처로 판단되고 있음.

#### 라. 미·중 관계

- <중국, 美본토서 첫 군대 파견 합동군사 훈련>(11/10, 연합뉴스)
  - 중국 심양망은 미국과 중국군은 오는 12~14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도주 의적 구조 및 재해구호 합동훈련을 할 계획이며,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 실제병력을 미국 본토에 파견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음.
- 합동훈련은 제3국에서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가상해 양국이 군대를 파견, 공동으로 인명 구조 및 재해 확산 방지 활동을 벌이는 것이며, 아울러 상호 장비 전시, 기능 교류 등 부대활동도 이뤄질 것임.
  - 이번 합동훈련은 미중 양국간 군사교류와 군사적 상호신뢰가 진전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中, 美본토 타격 잠대지 핵미사일 전력화”〈美보고서〉〉(11/12, 연합뉴스)
-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중국이 잠수함에서 발사,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대지 핵 탄도 미사일 전력화를 눈앞에 뒀다고 평가했음.
  - 보고서는 중국에서 운용 중인 094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올 연말까지 사정 7천km의 잠대지 탄도미사일 취량2의 초기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기반 핵 억제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음.
  - 또한 보고서는 중국은 2015년에는 세계 2위의 대형 전투함 보유국이 될 것이며, 5~10년 안에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할 것으로 내다봤음.

#### 마. 미·일 관계

- <일본, MD강화 위해 요격시스템 추가도입 검토〉(11/10,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최종단계고도지역방위(THAAD) 시스템과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SM3)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THAAD는 상대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돌입한 직후의 상층부에서 요격할 수 있으며, SM3는 이지스함을 전개하지 않은 채 쏠 수 있어 불시에도 상대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MD시스템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음.
  - 아베 정권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MD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있음.
- <케리 美국무 "일본, 한국 관련해 '미완의 과제' 있다"〉(11/15,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제50회 미일 기업컨퍼런스에서 "미국과 일본은 모두 한국과 관련해서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 국무장관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에 '미완의 과제'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한편 케리 장관은 "북핵 문제와 같은 도전과제들은 결코 작지 않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야할 세대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미일관계는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누구도 미일동맹의 강건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바. 한·일 관계

##### ● <中, 전투기 긴급발진 대상구역 설정 검토>(11/10,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중국군 문서를 인용해 중국군은 외국 항공기의 영공 침범을 견제하기 위한 전투기 긴급발진의 기준이 되는 방공식별권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문서에 따르면 중국군의 한 간부는 "현재 상태에서는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해상 접경국이 중국에 불리한 해역 경계를 주장하고 있다"며 방공식별권을 시급히 설정해 방공작전 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음.
- 현재 일본은 센카쿠 주변에 방공식별권을 운영하고 있는바, 결국 중국도 센카쿠 주변에 방공식별권을 설정할 경우 중일 양국의 방공식별권이 겹칠 수밖에 없어 공중에서의 중일 간 긴장이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있음.

##### ● <中 "일본, 중국을 적수로 생각한다면 오만한 것">(11/11, 연합뉴스)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한 보도에 대해 "우리는 일본 지도자가 공공연히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운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음.
- 이어 "일본이 만약 중국을 적수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정말 상대를 잘못 선택한 것일 뿐 아니라 오만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 또한 친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추구하며, 중국이 적당한 군사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복잡해지는 국제형세 아래 주권·안전·영토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 <日, 전차 60% 줄여 MD·낙도방위에 충당>(11/12,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11일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육상 자위대 전차 수를 현재의 약 740대에서 약 300대로 대폭 줄이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음.
- 방위성은 전차 감축 분의 국방 예산을 MD향상 및 낙도(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 방위를 위한 장비 구입 등에 충당할 계획이며, 아베 정권은 연말에 새롭게 작성할 '방위대강'에 이 방안을 담은 예정이라고 함.
- 이는 결국 방위력 강화의 초점인 중국 변수를 의식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됨.



- <中, 日 '교과서 검정기준 변경'에 "역사 반성해야">(11/15,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사회 교과서의 역사, 영토 서술에 관한 검정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일본이 군국주의와 대외 침략주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심각하게 반성하는가는 일본과 아시아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다"고 밝혔다.
  - 홍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일본이 과거 밝혔던 역사 문제에서의 표현과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실제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정책 고문이 최근 "중국이 센카쿠 문제에서 일본을 도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서도 "누가 다요위다오 문제에서 도발하는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 <日 경제인 178명 방중...중일관계 개선되나>(11/15, WSJ)
  -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일본의 주요 기업 경영진 178명이 다음 주 단체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특히 일본 경제인들은 오는 18일부터 이뤄지는 7일간의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의 최고 지도부를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어 면담 성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일본 경제인들의 방중은 일본이 작년 9월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단행한 이후 양국간 갈등이 고조된 지 1년여 만에 이뤄지는 것임.
  - 중일관계 개선을 향한 신호는 최근 몇 달 사이 양국간 공식, 비공식 부문에서 대화가 재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무역 및 관광 실적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는 데서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임.

## 사.기 타

- <중국 국가안전案 설립...대내외 안보역량 강화>(11/12, 연합뉴스)
  - 중국은 12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SC)를 모델로 삼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 중국은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데다 각국과 해상영유권 분쟁을, 내부적으로는 분리운동의 거세지는 상황을 겪고 있는바, 대내외 안보 문제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아베 신조 정권의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움직임과 집단 자위권 추진 등 공세 강화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격랑의 동북아...경쟁적 안보사령탑 강화>(11/13, 연합뉴스)
  -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3국이 경쟁적으로 안보 사령탑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은 협력과 통합보다는 대결과 갈등의 기운이 강한 동북아 지역의 현 안보 환경을 여실히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일본 중의원은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을 통과시켰고, 중국은 12일 폐막한 18기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한국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설기구인 국가안보실을 신설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동북아 3국의 안보 사령탑 강화가 자칫 상호 간 충돌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나 한편에서는 안보 기구 정비는 세계적 동향으로 굳이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음.
  
- <중국군, 잇단 해상 군사훈련...'무력 시위'>(11/13, 연합뉴스)
  - 중국신문망은 중국군이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동중국해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중국군은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초까지 서태평양에서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등 중국 3대 함대가 모두 참가한 원양 훈련을 했음.
  -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해양 강국' 구호를 내세우면서 해군의 훈련 빈도를 높이고 활동 범위도 넓히고 있는바, 이는 일본과의 센카쿠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력시위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임.
  
- <朴대통령-푸틴 정상회담..."유라시아 시대 만들것">(11/1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 간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새 정부 출범후 한반도 주변 4강 국 정상 가운데 첫 번째이며,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양국 기업 간 체결됐음.
  - 이어 회담 후 협정 서명식에는 한러 비자 면제협정, 문화원 설립협정 등이 체결됐음.
  
- <일본, 집단자위권 지리적 한계 비설정 방침 재확인>(11/14,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13일 회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자위대의 활동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체로 일치했다고 보도했음.
  -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토대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간담회의 결론은 사실상 정부 방침으



로 볼 수 있음.

- 한편, 지난 9월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지구 반대편과 같은 지리적 개념은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에 맞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음.

● <"한·일 관계 회복돼야 美 아시아중시정책 가능">(11/15, NYT)

-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와 아산정책연구원 카를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14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한일 양국의 불화관계를 끝내야 하며, 미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 두 연구원은 "한일간 긴장관계가 심화하면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이 타격을 입는다. 한일간 군사협력 없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어 미국이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역사문제에 계속 침묵하면 '아시아 중시정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일간 긴장관계 해소는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해줄 것이며,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더 확대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FAO "북 내년에 쌀 190만톤 확보"(자유아시아방송, 11.11) [붙임 1]**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내년도 북한의 쌀 확보량을 올해 추수한 약 180만 톤과 내년에 수입할 10만 톤 등 약 190만 톤으로 추정
  - 식량농업기구는 11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세계식량전망보고서(Food Outlook)'에서 2014년 북한이 190만 톤의 쌀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올해 가을 쌀 수확을 약 180만 톤으로 추산하고 이에 내년 중반까지 수입과 외부 원조로 확보할 양을 모두 더하면 일 년 동안 약 190만 톤의 쌀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
  - 또한 북한의 또 다른 주식인 옥수수는 230만 톤 생산과 30만 톤 수입으로 약 270만 톤을 확보한다고 전망
  - 보고서는 2013년 추수철부터 2014년 여름까지 일 년 동안 북한 주민 한 사람당 쌀 소비량을 지난해와 비슷한 67.2kg이며, 옥수수 소비량은 약 86kg으로 쌀 소비 예상보다 약 20kg 많음.
  - 북한 주민 한 사람이 일 년 동안 소비할 쌀과 옥수수를 합하면 약 154kg으로 유엔의 일인당 권장 소비량의 절반 수준이어서 북한의 식량난은 내년에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 식량농업기구의 키산 군장 북한 담당 분석관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 내용이 지난달 유엔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확보한 최신 자료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면서 조만간 공개될 보고서에 더 정확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언급
  
- **평양 지하철에 '앵벌이 조직' 등장(자유아시아방송, 11.11)**
  - 날씨가 차지면서 장마당을 떠돌며 구걸하던 '꽃제비'들이 평양 지하철역으로 모여들어 승객에게서 돈과 버스표를 요구하는 등 '앵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목격
  - 중국 랴오닝성 지방에 방문차 나온 한 평양 주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장마당과 공원을 떠돌던 어린 꽃제비들이 역전대합실과 지하철로 몰려들어 금품을 구걸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과거에는 꽃제비들을 쫓아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요즘 꽃제비들은 구걸 방법과 수단이 한층 제고된 고단수를 쓰고 있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소리칠 때는 뻔뻔함까지 느껴진다고 언급
  -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나타났던 꽃제비들은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애들이었다면 지금 구걸하는 애들은 옷도 괜찮게 입고 어딘가 거처지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
  - 다른 소식통은 앵벌이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주먹이 센 청소년들인데,



이들은 아이들을 돈벌이에 내보내고 돌아온 다음에는 총화를 짓고 옷차림까지 통제하는 등 조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

- 평양시 보안당국은 올해 초 평양시내 청결을 위해 역전 대합실과 지하 철역에서 구걸하는 꽃제비와 기출 소년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어, 우두머리들은 구걸하는 소년들에게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세수도 시켜 내보내는 등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언급

#### ● 미 매체, 기독교 선교사들의 북한 사업 조명(미국의 소리, 11.11)

-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슬레이트(Slate)'와 북한 전문 '엔케이 뉴스(NK NEWS)'는 북한에서 선교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
- 이 매체들은 지난 7일 폐쇄와 검열이 엄격한 북한에서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며, 이들은 대개 여행사와 빵공장, 축산업 등 농장과 교육, 고아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
- 매체들은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활동을 '선교사업(Business as Mission: BAM)'으로 부르다며, 복음을 직접 전하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과 달리 사업을 통해 교류하며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
- 또한 북한 당국도 선교사들의 정체를 알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이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선택 폭이 적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며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일부 선교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직접 선교 불가 등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지 않으면 북한 내 사업 활동과 안전에 큰 무리는 없다고 언급
- 하지만 매체들은 선교사들의 실수와 북한 당국의 갑작스런 방침 변경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며, 케네스 배 씨 역시 실수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가방에 남겨 뒀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고 설명
- 한국 내 보수성향의 기독교인들은 북한 정부와 협력하는 선교 활동이 북한 정권을 돕고 독재체제를 연장한다며 비판하고 있으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 김 씨가 라선에 본부를 두고 운영하는 크라운(Krahun Co.)회사 측은 이런 활동이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지적

#### ● 北 신문 "주민 탈북 유도하는 南당국 징벌" 거듭 위협(연합뉴스, 11.11)

- 북한은 11일 남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징벌'을 거듭 다짐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단호히 징벌해야 할 인권범죄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들의 유인납치행위와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대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그에 가담한 자들과 주모자, 공범자들을 모조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해 나서고 있



다"고 주장

- 이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괴납치와 반공화국 모략의 맨 앞장에서 날뛰는 괴뢰정보원 원장 남재준을 비롯한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은 마땅히 그 첫번째 대상"이라고 강조
- 신문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등이 북·중 국경 지역과 외국에서 조직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고 있다며 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유신부활 책동'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정부가 '동족대결' 분위기를 조성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

● **北 조평통, 차대통령 유력순방 발언 비난(연합뉴스, 11.12)**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기간 북한에 핵 포기과 인권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반공화국 대결 망발"이라고 맹비난

● **미 선교단체 "북 고아 등에 성탄선물"(자유아시아방송, 11.12)**

- 미국의 선교단체가 올해로 3년 째 중국과 접한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에게 방한용품과 생필품 등을 담은 성탄 선물을 보내기 위한 모금 운동 실시
- 미국의 선교단체 318 파트너스는 기독교 최대 명절인 12월 25일 성탄절을 전후 해 북중 국경지대에서 섭씨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고통받는 고아 등 북한 주민에게 선물꾸러미를 보낼 계획
- 318 파트너스는 올해도 오는 25일까지 선물구입 비용을 모으고 있으며, 지난 10일 현재 총 36개의 선물구입 비용이 확보
-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또 다른 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 솔트(PSALT)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는 '희망의 상자(Box of Hope)' 보내기 운동 실시

● **미 선교단체, 지난해 풍선으로 북한에 성경 5만권 보내(미국의 소리, 11.12)**

-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 주에 본부를 둔 기독교 선교단체 '서울 유에스 에이(Seoul USA)'가 지난해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성경 5만권을 보냈다고 미국의 '폭스뉴스'가 보도
- '서울 유에스 에이'의 대표인 에릭 폴리 목사는 이 방송에, 지난 2006년부터 한국의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고 있다며, 풍선에 성경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간증을 담은 소책자와 단파 라디오도 보내고 있다고 설명
- 폴리 목사는 자신들의 활동은 복음뿐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언급했으며, 또 북한에 10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있고 이 중 3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산



- **北대학생, 어학교재 공동구매해 베끼는 이유는?(데일리NK, 11.12)**
  - 북한에서 영어 및 중국어 교재의 가격이 비싸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교재를 빌리거나 공동으로 구매해 베끼는 필사(筆寫)를 통해 어학 공부를 하고 있는 형편
  - 평안남도 소식통은 12일 대학생들이 학습을 하려는 욕구는 높으나 실제로 배우는 데 필요한 교과서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대학생들이 돈을 모아 비싼 교과서를 하나 구입해 자필로 베껴 공부하면서 교재 베끼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안된다고 일부 부모들은 대학 측에 불만을 제기
  -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일반 대학들보다 외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은 시장에서도 교재를 구하기 어렵고 빌려 볼 곳도 없어 공부가 어려움.
  - 외국어 교재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부르는 값대로 줘야 하는 상황이며, 소식통은 "시장에 교재 파는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나가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순식간에 팔린다"고 전달
  - 또한 "외국어를 장려하려는 당의 방침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어 과목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 교재생산도 늘려야 하지만 생산도 늘리지 않고 대부분 과거 교재를 활용하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서 "교육당국은 '우리당의 교육정책의 우월성, (김정은) 후대사랑'만을 선전하는 데만 급급하고 교재생산 등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
  
- **국가보위부검열에 국경연선 주민 긴장(자유아시아방송, 11.12)**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경연선도시 양강도 혜산시에 대한 검열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당 정치국지시에 따른 이번 검열은 다른 국경도시들도 모두 포함돼있어 연선주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
  - 지난 10월 20일 양강도 혜산시에 대대적 검열에 앞서 2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보위부 검열 선발대가 각 인민반을 중심으로 조사사업 실시
  - 소식통은 선발대의 조사사업에 이어 11월 1일부터 보위대학 학생 70명으로 된 기본 검열대가 "아랫동네(남한)와 연결된 선들을 모조리 적발, 소탕"하기 위해 검열 실시했다고 언급
  - 이번 검열은 10월 6일에 내린 중앙당정치국지시문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실데 대하여"에 따른 것으로 검열대상은 불법전화소지자, 행불자가족, 외국의 기관 및 단체와 연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들
  - 체포된 불법휴대전화 소지자들은 모두 국가보위부 검열대에 넘겨진 상태며, 이들은 검열대 본부가 위치한 국경경비여단 내부에 구금돼 있어 제 아무리 힘 있는 가족이라도 면회가 불가능한 형편
  - 소식통은 이들 불법휴대전화 소지자들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북한에 남은 탈북자 가족들에게 전달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검열에서 탈북자 가족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예측
  
- **북한, 최근 외부 영상물 단속 강화(미국의 소리, 11.13)**
  - 북한 당국이 최근 외부 영상물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했으며, 영상



유포자들에 대한 공개처형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증가

- 'KBS' 방송은 지난 7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청진과 혜산에서 불법 녹화물 거래와 마약 등의 혐의로 3 명이 처형됐다고 보도
- '중앙일보'는 더 나아가 이달 초 강원도 원산 등 7개 도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주민 80여 명이 공개처형됐다고 보도했으며,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11일,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하지만 한국의 한 소식통은 최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
- 북한 지방 간부 출신인 미국의 탈북 난민 정모 씨는 한류 현상의 확산이 북한 정권에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말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다소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일조하고 이른바 황색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총소리를 울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
- 정 씨는 이런 단속과 처형을 통한 공포 조성은 과거에도 반복됐던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대부분의 북한 간부들과 평양 시민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 보고 있고 이미 북한에서 소비시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단속은 미봉책에 그치고 곧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

#### ● 한국 검찰, 밀입북 6명 중 3명 구속 기소(미국의 소리, 11.13)

- 한국 공안당국은 최근 북한에서 송환된 밀입북자 6 명 가운데 김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3 명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
- 한국 검찰에 따르면 북에서 송환된 6 명은 사업 실패와 가정불화 등을 겪거나 인터넷에서 종북 활동을 하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잠입
- 한국 공안당국 조사에서 이들은 밀입북하기 전 신장결석이 발생해 북한에서 치료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북한체제에 대한 큰 실망과 배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짐.
-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이들 중 유해의 살해범으로 지목된 남편 이모 씨 등 나머지 3 명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기소할 방침

#### ● 북, 화교 외부영상물 시청도 금지(자유아시아방송, 11.14)

- 북한당국이 최근 북한거주 화교들의 외부 영상물 시청을 금지
- 북한은 지금까지 다른 주민들에게 보여주지만 않으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 가정에서는 외부 영상물 시청행위를 묵인해왔으나, 최근 외부영상물 시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함경북도의 화교 조모 씨는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 처벌 사건 이후 화교들 집에도 외부영상물 단속 요원이 수시로 들이닥쳐 집안을 뒤지는 일이 잦아졌다고 언급
- 조 씨는 화교들의 외부 영상물 시청 묵인에 대한 관행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얼마 전까지 유지돼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화교들도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 당국이 이처럼 외부영상물 시청행위에 대해 화교들도 예외 없이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화교들도 적지 않아 화교들에 대한 외부영상물 단속은 최근에야 시작된 것으로 짐작

#### ●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21,447명(자유아시아방송, 11.14)

-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는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돼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만 1천447명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밝힘.
-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늘어난 수치
- 아무르주가 이날 연방 이민국 통계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는 주로 극동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에 집중
- 지역별로는 극동 연해주(프리모리예)에만 러시아 전체 북한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몰려, 모두 5천600명(전체의 26%)이 파견되어있으며,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주에 2천100명(9.8%)이 파견돼 두 번째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밀집
- 또 극동 하바로브스크주(1천600명, 7.5%)와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주(1천500명, 7%), 그리고 극동 아무르주(1천400명, 6.5%)
-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주로 벌목이나 건설, 그리고 농업 분야 등에서 종사

#### ● 북-중 국경 경비 강화에도 탈북자 구출 계속돼(미국의 소리, 11.14)

-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 강화로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민간단체들의 탈북자 구출은 지속
- 탈북난민구호사업단의 이미숙 단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8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구출했으며, 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힘들어지고 구출 경비도 크게 오르는 상황이지만 탈북자 구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
- 이 단체는 이번에 도움을 요청한 어린이 4명 등 탈북자 7명을 안전한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데 미화 1만 7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호소
- 미국의 민간단체도 탈북이 가장 쉬운 것으로 알려진 겨울철을 앞두고 적극적인 탈북자 구출운동을 전개
- 미 서부에 본부를 둔 대북 인권단체 링크(LiNK)는 지난 한 달 동안 탈북자 40명을 구출할 수 있는 경비 1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힘.

#### ● 북 보위부 국경검열에 주민들 냉소(자유아시아방송, 11.15)

- 북한이 평안북도를 비롯한 국경 전반지역에서 불법 영상물 시청자들을 비롯한 비사회주의 행위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강력 단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라고 함.
- 내부 주민들과 연락하고 있는 한 탈북여성은 북한이 평안북도 국경지방



- 에도 국가안전보위부 검열단을 파견해 검열에 나섰다고 설명
- 평안북도 지방에 나온 남포 지방의 한 북한 주민도 얼마 전 "보위부 정치대학 학생들이 2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며 밤중에 가택수색을 했는데, USB를 찾아내기 위해 자던 사람의 바지 주머니까지 뒤져 살벌했다"고 언급
  - 단속 배경에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나 음란물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체제를 위협하는 수위까지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
  - 하지만, 소식통은 북한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당국의 국경검열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이 여성은 "예전에도 연말이 되면 보위부나 국방위원회 합동 그루빠가 국경에 내려왔다가 갈 때는 한 보따리씩 가져가는 관례를 보았다"며 "이번에도 검열단들이 밀수꾼들과 중국 손전화 소지자들을 잡아 한 몫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
- **몽골 대통령, 김일성대 연설서 '자유·개방' 강조(미국의 소리, 11.15)**
-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자유를 주제로 연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
  -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열린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고 말해 관심
  -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날 연설에서 거의 절반을 자유와 인권, 열린사회, 사법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 특히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며 "자유가 영원한 힘" 이라고 수 차례 강조
  -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이 이런 기조로 1990년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치와 경제 개혁을 단행해 국내총생산(GDP)의 10퍼센트 미만이었다던 민간 부문의 지분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 80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린 전례를 볼 때 "자유사회는 성취를 위한 목적이기 보다 살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언급
  - 또 몽골이 2009년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옹호하고 있으며, 사법개혁을 통해 부패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
  - 이 밖에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연설 후반부에서 두 나라 관계의 협력과 발전, 젊음의 활력과 창의성을 언급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젊기 때문에 북한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

## 2. 북한인권

- **북, 주민 80명 휴일 공개처형 ... 7개 도시서 기관총 난사(중앙일보, 11.11)**
- 북한이 이달 초 강원도 원산을 비롯한 7개 주요 도시에서 80여 명의 주



- 민을 무더기로 공개처형했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 인사가 밝힘.
-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이 인사는 공개처형이 일요일인 지난 3일 동시에 집행됐다고 한 곳당 10여 명 안팎의 주민이 남한에서 유입된 드라마·영화를 보거나 음란물을 유통했다는 등의 혐의로 처형됐다고 설명
- 지난해 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개처형을 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
- 방북 인사에 따르면 공개처형이 이뤄진 도시는 원산과 평북 신의주, 평남 평성, 함북 청진, 황북 사리원 등
- 이 인사가 현장을 목격한 주민에 전해 들은데 따르면, 원산 공안당국은 3일 낮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포함한 1만여 명의 주민을 신평경기장에 집결
- 소총이 아닌 기관총 등으로 난사해 시신이 산산조각 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참관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전달
- 처형당한 이들은 대부분 북한 당국이 금지한 남한 비디오 암거래와 시청, 성경 소지, 매음 등의 혐의이며, 처형당한 주민의 가족이나 혐의가 경미한 연루자들은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오지로 추방 조치
- 이번 공개처형은 평양을 제외한 북한 전역의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지난달 23일 노동신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북한의 14개 경제개발구 지정 도시와 일치한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분석
- 휴일을 택해 같은 날 7개 지역에서 동시에 공개처형이 집행된 건 이례적으로, 중앙정권 차원의 결정이 있었음을 뒷받침
- 이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과 특구 조성을 앞두고 공개처형이란 극단적인 조치로 민심 동요나 자본주의 기운이 확산되는 걸 막아보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7월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들이 음란비디오를 만든 사건으로 집단 처형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지적도 제기

#### ● 서울서 '북 인권과 민주화' 국제회의(자유아시아방송, 11.11)

- 유럽연합이 지난 2년 간 지원해온 북한인권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는 국제회의가 오는 18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
- 독일(도이칠란드)의 민간단체 한스자이텔재단 서울사무소는 오는 18일 '북한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힘.
-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2년 간 진행된 한국과 유럽연합의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EU-Korea Human Rights and Democratic Transition Dialogue Programme)을 마감하는 학술회의
- 이번 프로그램은 한스자이텔재단 서울사무소와 NK지식인연대를 비롯해 또 다른 탈북자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공동으로 진행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13일 한국 방문(연합뉴스, 11.12)
  -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2일(현지시간) 발표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사흘간의 한국방문 기간에 정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 민간단체 등을 만날 계획이며,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3시에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도 할 예정
  
- 홍콩 인권단체, 내달 북 인권 도서전(자유아시아방송, 11.13)
  - 홍콩의 대북인권단체가 다음달 홍콩에서 열리는 도서전시회에 참가해 북한인권에 대한 홍콩인의 관심을 높일 계획
  -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우려하는 홍콩 내 중국인을 주축으로 한 단체 '탈북자관심(North Korean Defectors Concern)'이 다음달 7일과 8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도서전시회(Kowloon City Book Fair 2013)에 참가
  - 이 단체의 오웬 라우(Owen Lau) 대표는 홍콩인들에게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부스를 마련했다고 설명
  
- 전문가 76% "금강산 전에 개성 관광이라도 재개해야"(연합뉴스, 11.13) [붙임 2]
  -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2.4%는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재개돼야 한다고 응답
  -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92.4%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태도
  - 이산가족 상봉 및 국군포로 교환을 위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에 대해서는 79.0%가 찬성
  
- "북, 올해도 인도주의 위기 감시대상국"(자유아시아방송, 11.13) [붙임 3]
  -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13일 '세계 위기 사태 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전세계 나라들 중 식량난, 자연 재해 상황, 그리고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2년째 인도주의 위기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
  -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전세계 국가들의 자연 재해와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ACAPS는 최근 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1천600만 명의 주민들이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240만 명이 외부로부터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고
  - 북한은 현재 지난 2년간 계속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특별 감시대상국'은 인도주의적 위기 정도가 높아 다른 인도주의 지원 요청



국들보다 우선적으로 감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나라를 의미

- ACAPS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강제 수용소라든가, 고문 등 갖가지 인권 유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나쁘다고 설명

● **미 상원 외교위원장 "대북정책서 인권 문제 더 제기해야"(미국의 소리, 11.15)**

-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NED) 설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은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 등 방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동안 인권에 대해서는 핵 문제 만큼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
-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모색하기 위해 어디까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

● **제2회 유럽 북한인권 포럼(서울신문, 11.16)**

- 통일연구원(원장 전성훈)은 오는 19일 스위스 주제네바 대표부에서 '제2회 유럽 북한인권 포럼-최근 북한 현황과 북한인권 기술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예정
-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상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유엔 인권 기구 차원에서의 기술협력 방안을 모색

● **로버트 킹 美 북한인권특사 방한...北인권 논의(연합뉴스, 11.17)**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7일 오후 방한했으며, 19일에는 일본을 방문할 예정
-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킹 특사는 사흘간의 방한 기간에 외교부 노규덕 평화외교기획단장, 김문환 국제기구국장과 통일부 천해성 통일정책실장 등 정부 당국자들을 두루 만나 북한 인권 관련 사안을 논의
- 킹 특사가 이번 한·일 방문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 노력을 위해 방북할지 관심
-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킹 특사가 방북하려고 대기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설은 계속 돌고 있지만 이번에도 방북을 추진할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

### 3. 탈북자

● **심윤조 의원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도 지원해야"(데일리NK, 11.17)**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자의 자녀들을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힘.

-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따라서 북한을 탈출해 일정기간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낳은 자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 심 의원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을 현행법 보호대상자로 포함해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 5. 납북자

- 일본 도쿄서 '100인 북한 납치 토론회' 개최(미국의 소리, 11.14)
  -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대신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에서 다음 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언급
  - 후루야 대신은 납치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제재 해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
  - 다음달 14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납치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자와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

####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영국 적십자 "내년에 48만 달러 규모 대북지원"(미국의 소리, 11.12)
  - 영국 적십자사가 2014년에 북한에 나무를 심고 식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적십자회에 30만 파운드, 미화 약 48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
  - 영국 적십자사의 애나 맥스완 대변인은 올해는 25만 파운드, 미화 4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언급
  - 지난 2012년 영국 적십자사가 제공한 자금으로 북한 내 122ha의 헐벗



은 산지에 73만 5천 그루의 묘목이 심어졌다고 설명했으며, 49ha의 산지에는 나무와 농작물을 함께 심는 혼합농림업이 보급

- 한편 영국 외에 호주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13개 나라 적십자사가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조선적십자회를 지원하기로 하고 합의

● **러시아, 북한에 6만7천 달러 상당 의약품 지원(미국의 소리, 11.12)**

- 러시아 외교관들이 11일 북한 당국에 미화 6만 7천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
- 러시아 국영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번 지원이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 이뤄졌다고 보도
- 알렉산더 티모닌 평양주재 러시아대사는 전달식에서 이번 지원을 통해 여름 장마철에 자주 고통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개선됐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자연재해를 당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특히 유엔 기구를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

● **IFRC, 북 수해 복구 사업 완료(자유아시아방송, 11.12)**

- IFRC, 즉 국제적십자사는 올해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지역에서 펼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이달 초 마무리했다고 설명
- IFRC 베이징 사무소 대변인실은 12일 수해 지역에서 거처를 잃은 주민들을 최우선적 수해자로, 살림살이를 잃어버린 주민들을 다음 우선순위로 정해 구호 물품을 제공했다고 언급
- 이 밖에도 이 기구는 홍수 발생시 '전국재난 대응팀'과 '구역 재난 대응팀'이 재빨리 보고를 하고, 피해 상황을 둘러본 후 긴급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와 훈련을 제공
- 하지만 올해에는 수재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은 이뤄지지 않음.
- 한편 IFRC는 내년 북한에서 펼칠 대북사업에 700여만달러의 예산을 지난달 말 배정했으며, 이 기구는 내년에 나무 심기나 재난 대응 훈련 등을 포함한 북한의 자연 재해 감소 사업은 계속 주력 사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IFRC는 내년 북한 전역 보건소 1천100여 곳에 의약품을 제공할 계획

● **프 NGO, 대북사업 4건 이달 종료(자유아시아방송, 11.15)**

- 프랑스의 민간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riangle GH)는 황해도 일원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4개 식량지원 사업과 식수개선 사업의 지원 시한이 11월로 끝난다고 밝힘.
- 유럽연합이 북한에서 진행하는 6개 사업에 참여한 이 단체는 사리원군과 신흥군, 영광군 등 황해도 지역 어린이와 농민 가족을 지원
- 이 단체의 아시아 지원 담당자는 북한에서 겨울에도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온실을 세우고 양어장을 만들어 부족한 식량 지원을 확충하는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



- 프랑스 구호단체의 식량지원은, 농장이나 양어장을 지원해 여기서 기른 생선이나 우유를 그 지역의 굶주리는 어린이에게 전하는 방식
-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최근 발행한 세계지원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 진행한 6개 지원 사업 중 5건을 이달과 다음 달에 종료
- 황해남도 신흥군과 영광군에 세운 양어장의 생선을 이 지역 어린이 약 2만 명에 지원해오던 '어린이 보호시설의 식단 개선 사업'은 2010년 1월에 시작돼 최근 종료
-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예정됐다 가을까지로 연장된 '보육시설 급식개선 사업'은 사리원군과 남포 지역 어린이에 이 단체가 운영하는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식량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약 1만 6천400명을 지원
- 지난 4월부터 황해도 257개 학교와 고아원 등 보육 시설에 우유와 생선을 보관하는 창고와 저장시설을 만들어 3만여 어린이에게 식량을 지원 하던 사업은 다음 달까지가 시한
- 이들 사업이 끝나면 프랑스 구호단체가 북한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황해남도 소흥시의 유아원과 학교에 하루에 최대 58만 리터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식수 공급 사업만 남음.
-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로 예정
- 한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관계자는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지원사업은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2006년부터 시작한 '유럽연합의 지원 계획'에 참여해 온 것이라면서 유럽연합과 북한 당국과 추가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 8. 북한동향

- 우리 정부가 '北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와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다'고 지속 비난 및 위협을 하며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 것은 대선개입사건 등에 쏠린 여론이목을 탄 데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이라고 왜곡 주장(11.11, 중통·노동신문·중방/단호히 징벌해야할 인권범죄자)
- '국정원 대선개입설, 내란음모사건 등은 유신독재체제에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며 '현 집권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유신독재자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왜곡 주장(11.14, 중통·노동신문/유신독재부활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
- 【중통사 논평】 '日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두둔, 인정한 것은 '전범죄'에 대한 묵인인 동시에 재침야망에 대한 공공연한 인정이고 침략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자청해 나서는 역적행위'라고 지속 '정부' 비난(11.14, 중통/조선 사



람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붙임 1] FAO, Food Outlook November 2013.

APPENDIX TABLE 3(A): COARSE GRAIN STATISTICS

	Production			Imports			Exports		
	2009-2011 average	2012 estim.	2013 f'cast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 million tonnes.....)									
<b>ASIA</b>	<b>301.9</b>	<b>335.4</b>	<b>344.9</b>	<b>64.5</b>	<b>68.8</b>	<b>74.7</b>	<b>6.0</b>	<b>6.9</b>	<b>5.7</b>
China	186.9	214.7	222.5	8.8	11.2	15.4	0.4	0.1	0.5
of which Taiwan Prov.	0.1	0.1	0.1	4.5	4.5	4.8	-	-	-
India	39.9	41.6	41.1	-	-	-	3.2	4.8	2.5
Indonesia	17.9	19.4	18.8	1.8	2.4	2.1	0.1	0.1	0.1
Iran, Islamic Republic of	5.1	4.7	4.5	4.6	6.0	5.2	-	-	-
Japan	0.2	0.2	0.2	18.8	17.6	18.8	-	-	-
Korea, D.P.R.	2.0	2.4	2.4	0.3	0.3	0.3	-	-	-
Korea, Republic of	0.2	0.2	0.2	8.1	8.5	9.1	-	-	-
Malaysia	-	0.1	0.1	3.1	3.1	3.4	-	-	-
Pakistan	4.3	5.2	5.2	-	-	-	-	-	-
Philippines	6.8	7.4	7.4	0.1	0.1	0.1	-	-	-
Saudi Arabia	0.4	0.4	0.4	9.4	10.0	10.0	-	-	-
Thailand	5.0	5.1	5.2	0.3	0.1	0.4	0.6	0.1	0.5
Turkey	12.3	12.4	13.6	0.5	0.5	0.3	0.3	0.3	0.3
Viet Nam	4.6	4.8	4.9	1.2	1.3	1.7	-	-	-
<b>AFRICA</b>	<b>119.5</b>	<b>125.5</b>	<b>123.3</b>	<b>16.8</b>	<b>16.4</b>	<b>17.8</b>	<b>6.9</b>	<b>7.7</b>	<b>7.0</b>
Algeria	1.9	1.6	1.9	2.8	3.2	3.1	-	-	-
Egypt	8.1	7.8	7.3	6.1	5.8	5.6	-	-	-
Ethiopia	15.5	17.4	17.5	0.4	0.4	0.4	0.0	1.0	0.0

APPENDIX TABLE 3(B): COARSE GRAIN STATISTICS

	Total Utilization			Stocks ending in			Per caput food use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2010-2012 average	2013 estim.	2014 f'cast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 million tonnes.....)									
<b>ASIA</b>	<b>359.4</b>	<b>386.4</b>	<b>409.1</b>	<b>69.5</b>	<b>86.6</b>	<b>89.0</b>	<b>15.4</b>	<b>15.3</b>	<b>15.6</b>
China	194.8	217.3	232.2	47.5	58.9	61.9	10.8	11.2	11.5
of which Taiwan Prov.	4.8	4.6	4.8	0.4	0.2	0.3	7.0	7.0	7.0
India	36.3	36.4	37.5	3.3	5.5	5.1	21.7	20.9	21.0
Indonesia	19.1	20.8	20.9	3.2	4.7	4.9	29.5	29.5	29.6
Iran, Islamic Republic of	9.4	10.2	9.9	1.3	2.4	2.2	1.4	1.3	1.3
Japan	19.2	18.1	19.2	1.6	1.4	1.4	29.3	29.3	29.4
Korea, D.P.R.	2.3	2.4	2.8	-	0.3	0.2	77.7	73.9	88.8
Korea, Republic of	8.4	8.3	9.6	1.6	1.7	1.2	4.4	4.5	4.5
Malaysia	3.1	3.1	3.4	0.3	0.1	0.1	1.7	1.6	1.6
Pakistan	4.2	4.8	5.0	1.5	2.2	2.4	9.2	9.4	9.6
Philippines	7.1	7.3	7.5	0.4	0.4	0.4	16.4	16.5	16.6
Saudi Arabia	9.6	10.5	10.7	1.8	2.2	1.9	3.7	3.5	3.4
Thailand	4.7	5.2	5.3	0.4	0.4	0.2	2.7	2.7	2.7
Turkey	12.6	12.6	13.4	1.8	1.8	1.9	16.9	16.5	16.3
Viet Nam	5.9	6.2	6.3	0.5	0.6	0.8	5.3	5.3	5.3
<b>AFRICA</b>	<b>128.0</b>	<b>133.9</b>	<b>136.2</b>	<b>17.6</b>	<b>18.6</b>	<b>16.7</b>	<b>76.5</b>	<b>77.1</b>	<b>76.7</b>
Algeria	4.5	4.8	4.9	1.0	0.9	0.9	19.9	19.7	19.4
Egypt	14.1	13.8	13.2	1.1	1.1	0.8	46.6	46.2	45.4

APPENDIX TABLE 4(A): MAIZE STATISTICS

	Production			Imports			Exports		
	2009-2011 average	2012 estim.	2013 f'cast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 million tonnes.....)									
<b>ASIA</b>	<b>253.3</b>	<b>288.1</b>	<b>296.9</b>	<b>48.0</b>	<b>50.8</b>	<b>55.8</b>	<b>5.0</b>	<b>6.4</b>	<b>5.0</b>
China	178.0	205.7	213.0	6.4	8.7	11.6	0.2	-	0.4
of which Taiwan Prov.	-	-	-	4.4	4.3	4.5	-	-	-
India	20.1	22.2	23.3	-	-	-	3.1	4.8	2.5
Indonesia	17.9	19.4	18.8	1.7	2.3	2.0	0.1	0.1	0.1
Iran, Islamic Republic of	1.7	1.3	1.3	3.7	4.5	4.0	-	-	-
Japan	-	-	-	15.7	14.3	15.4	-	-	-
Korea, D.P.R.	1.9	2.3	2.3	0.3	0.3	0.3	-	-	-
Korea, Republic of	0.1	0.1	0.1	8.0	8.4	9.0	-	-	-
Malaysia	-	0.1	0.1	3.1	3.1	3.4	-	-	-
Pakistan	3.8	4.6	4.6	-	-	-	-	-	-
Philippines	6.8	7.4	7.4	0.1	0.1	0.1	-	-	-
Thailand	4.8	5.0	5.0	0.3	0.1	0.4	0.6	0.1	0.5
Turkey	4.3	4.6	5.0	0.3	0.4	0.2	0.2	0.2	0.2
Viet Nam	4.6	4.8	4.9	1.1	1.2	1.6	-	-	-
<b>AFRICA</b>	<b>67.2</b>	<b>70.9</b>	<b>68.5</b>	<b>14.4</b>	<b>14.3</b>	<b>15.3</b>	<b>5.4</b>	<b>5.9</b>	<b>5.4</b>
Algeria	-	-	-	2.5	2.8	2.9	-	-	-
Egypt	7.2	7.0	6.5	6.0	5.7	5.5	-	-	-
Ethiopia	5.8	7.2	7.2	-	-	-	0.3	0.6	0.5
Kenya	3.1	3.6	3.0	0.6	0.4	1.0	-	-	-



APPENDIX TABLE 4(B): MAIZE STATISTICS

	Total Utilization			Stocks ending in			Per caput food use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2010-2012 average	2013 estim.	2014 f'cast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 million tonnes.....)						(..... Kg/year.....)		
<b>ASIA</b>	<b>295.3</b>	<b>321.7</b>	<b>341.9</b>	<b>59.8</b>	<b>75.3</b>	<b>79.1</b>	<b>9.4</b>	<b>9.5</b>	<b>9.7</b>
China	183.6	205.0	220.6	45.6	57.5	60.2	7.6	8.0	8.3
of which Taiwan Prov.	4.6	4.4	4.5	0.3	0.2	0.2	5.4	5.4	5.4
India	16.6	17.3	18.2	2.2	3.1	4.2	7.2	7.2	7.3
Indonesia	19.1	20.7	20.8	3.2	4.7	4.9	29.1	29.1	29.2
Iran, Islamic Republic of	5.3	6.0	5.5	0.8	1.0	0.8	1.0	1.0	1.0
Japan	15.9	14.8	15.6	0.8	0.7	0.7	26.8	26.8	26.9
Korea, D.P.R.	2.2	2.3	2.7	-	0.3	0.2	75.8	71.9	86.0
Korea, Republic of	8.1	8.1	9.4	1.5	1.6	1.2	1.9	2.0	2.0
Malaysia	3.1	3.1	3.4	0.3	0.1	0.1	1.7	1.6	1.6
Pakistan	3.6	4.2	4.4	1.5	2.2	2.4	7.4	7.5	7.6
Philippines	7.1	7.3	7.4	0.4	0.4	0.4	16.4	16.5	16.5
Thailand	4.5	5.0	5.1	0.4	0.4	0.2	1.2	1.2	1.2
Turkey	4.5	4.8	5.0	0.5	0.5	0.5	13.1	12.8	12.6
Viet Nam	5.8	6.1	6.2	0.5	0.6	0.8	5.3	5.3	5.3
<b>AFRICA</b>	<b>74.6</b>	<b>79.3</b>	<b>80.0</b>	<b>11.3</b>	<b>12.8</b>	<b>11.3</b>	<b>39.3</b>	<b>40.2</b>	<b>39.6</b>
Algeria	2.4	2.8	2.9	0.3	0.4	0.4	3.7	3.6	3.5
Egypt	13.1	12.9	12.3	1.0	1.0	0.7	43.2	42.9	42.1
Ethiopia	5.3	6.5	6.7	0.3	0.7	0.8	45.9	48.6	48.9
Kenya	3.8	4.0	4.1	0.4	0.4	0.3	82.2	82.2	82.1

Statistical appendix

APPENDIX TABLE 8(A): RICE STATISTICS

	Production			Imports			Exports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2010-2012 average	2013 estim.	2014 f'cast	2010-2012 average	2013 estim.	2014 f'cast
	(..... million tonnes, milled equivalent.....)								
<b>ASIA</b>	<b>425.7</b>	<b>444.4</b>	<b>448.8</b>	<b>17.2</b>	<b>17.6</b>	<b>17.3</b>	<b>27.6</b>	<b>29.8</b>	<b>29.8</b>
Bangladesh	33.1	33.8	34.3	0.7	0.1	0.2	-	-	-
China	136.3	141.1	140.1	1.8	3.0	3.1	0.5	0.4	0.5
of which Taiwan Prov.	1.1	1.2	1.2	0.3	0.3	0.3	0.1	-	-
India	96.8	104.4	106.0	0.1	0.1	0.1	5.8	10.2	9.0
Indonesia	41.3	43.5	43.6	1.9	1.1	1.0	-	-	-
Iran, Islamic Republic of	1.4	1.5	1.6	1.2	1.7	1.5	-	-	-
Iraq	0.1	0.1	0.1	1.3	1.5	1.5	-	-	-
Japan	7.7	7.7	7.7	0.7	0.7	0.7	0.2	0.2	0.2
Korea, D.P.R.	1.6	1.8	1.7	0.1	0.1	0.1	-	-	-
Korea, Republic of	4.5	4.0	4.2	0.4	0.5	0.4	-	-	-
Malaysia	1.6	1.8	1.7	1.0	1.0	1.0	-	-	-
Myanmar	19.8	18.6	19.2	-	-	-	0.6	0.5	0.5
Pakistan	6.0	5.5	5.8	-	0.1	0.1	3.1	2.9	2.8
Philippines	10.7	11.9	12.3	1.6	1.0	0.9	-	-	-
Saudi Arabia	-	-	-	1.2	1.4	1.4	-	-	-
Sri Lanka	2.7	2.6	3.0	0.1	-	-	-	0.1	0.1
Thailand	23.5	24.2	25.2	0.5	0.4	0.2	8.8	7.0	8.5
Viet Nam	27.0	29.1	29.4	0.6	0.6	0.6	7.2	7.0	6.8
<b>AFRICA</b>	<b>16.6</b>	<b>17.5</b>	<b>17.3</b>	<b>11.7</b>	<b>12.0</b>	<b>12.0</b>	<b>0.4</b>	<b>0.5</b>	<b>0.6</b>

Statistical appendix

APPENDIX TABLE 8(B): RICE STATISTICS

	Total Utilization			Stocks ending in			Per caput food use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2010-2012 average	2013 estim.	2014 f'cast	09/10-11/12 average	2012/13 estim.	2013/14 f'cast
	(..... million tonnes, milled equivalent.....)								
<b>ASIA</b>	<b>404.7</b>	<b>418.8</b>	<b>430.1</b>	<b>140.2</b>	<b>167.7</b>	<b>174.0</b>	<b>81.2</b>	<b>81.7</b>	<b>82.1</b>
Bangladesh	33.2	34.2	34.5	6.5	6.7	6.7	151.6	151.6	150.8
China	130.6	134.0	137.1	77.0	94.3	100.0	76.8	76.5	76.3
of which Taiwan Prov.	1.4	1.4	1.4	0.2	0.1	0.1	55.8	57.8	57.9
India	91.3	93.9	99.0	22.0	23.9	22.0	71.4	71.7	73.2
Indonesia	41.8	45.0	45.5	5.3	6.5	5.8	158.9	163.8	163.9
Iran, Islamic Republic of	2.6	3.1	3.2	0.3	0.5	0.5	31.2	36.4	36.8
Iraq	1.4	1.6	1.7	0.1	0.1	0.1	43.5	47.9	48.0
Japan	8.0	8.2	8.1	2.6	2.6	2.7	58.1	57.5	57.2
Korea, D.P.R.	1.7	1.9	1.9	-	0.1	-	61.3	67.2	67.2
Korea, Republic of	4.6	4.5	4.6	1.6	1.7	1.7	71.2	68.5	68.5
Malaysia	2.7	2.8	2.8	0.3	0.2	0.2	84.0	84.2	84.3
Myanmar	19.6	19.3	19.7	5.7	3.5	2.6	230.5	231.3	231.5
Pakistan	3.0	3.0	3.1	0.6	0.3	0.3	14.0	13.7	13.6
Philippines	12.6	12.6	13.1	2.8	2.2	2.3	120.7	122.2	122.4
Saudi Arabia	1.2	1.4	1.4	0.2	0.2	0.2	42.7	46.6	46.8
Sri Lanka	2.7	2.8	2.9	0.3	0.1	0.2	115.5	116.9	118.2
Thailand	12.6	13.3	13.9	9.0	17.4	20.4	131.6	135.8	136.2
Viet Nam	20.8	21.8	22.2	3.1	3.9	4.9	188.8	191.9	192.9
<b>AFRICA</b>	<b>21.4</b>	<b>22.4</b>	<b>22.6</b>	<b>2.0</b>	<b>2.4</b>	<b>2.2</b>	<b>22.0</b>	<b>22.2</b>	<b>22.2</b>

Statistical appendix


**APPENDIX TABLE 17: PIGMEAT STATISTICS**  
*(thousand tonnes, carcass weight equivalent)*

	Production		Imports		Exports		Utilization	
	2012 <i>estim.</i>	2013 <i>Fcast</i>	2012 <i>estim.</i>	2013 <i>Fcast</i>	2012 <i>estim.</i>	2013 <i>Fcast</i>	2012 <i>estim.</i>	2013 <i>Fcast</i>
<b>ASIA</b>	<b>64 076</b>	<b>65 817</b>	<b>3 405</b>	<b>3 324</b>	<b>451</b>	<b>515</b>	<b>66 989</b>	<b>68 616</b>
China	53 361	54 811	1 252	1 327	377	426	54 236	55 712
of which Hong Kong, SAR	140	145	524	550	122	158	541	536
India	329	329	1	1	-	-	330	330
Indonesia	729	736	1	1	-	-	730	737
Japan	1 297	1 305	1 259	1 208	1	1	2 555	2 512
Korea, D.P.R.	115	120	2	2	-	-	117	122
Korea, Republic of	1 086	1 240	508	406	2	4	1 551	1 632
Malaysia	230	230	13	12	7	13	236	230
Philippines	1 788	1 836	101	95	6	6	1 883	1 925
Thailand	870	875	3	3	28	35	844	843
Viet Nam	3 160	3 200	37	35	20	20	3 177	3 215
<b>AFRICA</b>	<b>1 305</b>	<b>1 319</b>	<b>268</b>	<b>299</b>	<b>8</b>	<b>11</b>	<b>1 564</b>	<b>1 607</b>
Madagascar	56	56	-	-	-	-	56	56
Nigeria	243	245	-	-	-	-	243	245
South Africa	324	321	43	47	4	7	364	361
Uganda	120	123	-	-	-	-	120	123
<b>CENTRAL AMERICA</b>	<b>1 758</b>	<b>1 805</b>	<b>802</b>	<b>774</b>	<b>121</b>	<b>137</b>	<b>2 439</b>	<b>2 441</b>
Cuba	180	176	42	45	-	-	222	221



## [붙임 2]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 II.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1. 대북 인도적 사업 :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함을 강조

○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해야 한다'에 높은 비율로 응답

- 전문가의 절대다수인 92.4%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6.7%)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할 필요가 없다'(1.0%)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
- 정치성향별로도 구분 없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치적 상황과 분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	92.4%	84.4%	95.5%	96.6%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	6.7%	12.5%	4.5%	3.4%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필요 없음	1.0%	3.1%	0.0%	0.0%

○ (대북 인도적 지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에 있어, 절대 다수(92.4%)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6.7%)과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1.0%)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

대북 인도적 지원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92.4%	84.4%	95.5%	96.6%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	6.7%	12.5%	4.5%	3.4%
인도적 지원 추진할 필요 없음	1.0%	3.1%	0.0%	0.0%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교환을 위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의 실효성)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프라이카우프' 방식 도입 검토에 찬성

- 전문가의 10명 중 8명(79.0%)은 이산가족 상봉 및 국군포로 교환을 위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등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한편 과거 정권에서도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물질적 보상을 통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음

프라이카우프 방식의 실효성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찬성한다	79.0%	81.3%	81.8%	72.4%
반대한다	16.2%	15.6%	13.6%	20.7%
잘 모르겠다	4.8%	3.1%	4.5%	6.9%

2. 개성공단 사업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방향)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 100만평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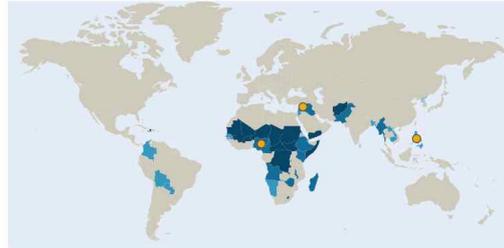
- 현재 1단계 사업 100만평 중에서도 약 40만평만 가동 중인 개성공단 사업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당수인 60.0%가 '1단계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 다음으로 '1단계 사업이라도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추진'(29.5%)의 순이었고,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10.5%)는 매우 낮음
- 한편, 성향별로는 진보(82.8%)와 중도(70.5%)의 경우 '1단계 사업은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보수는 '1단계 사업이라도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추진'(46.9%)에 높게 응답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방향	종합	보수	중도	진보
1단계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60.0%	25.0%	70.5%	82.8%
1단계 사업이라도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추진	29.5%	46.9%	25.0%	17.2%
더 이상 확대할 필요 없음	10.5%	28.1%	4.5%	0.0%



[붙임 3] ACAPS, Global Emergency Overview

acaps GLOBAL EMERGENCY OVERVIEW  
November 2013



Snapshot 5 - 12 November

In **Syria**, the opposition agreed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peace talks in Geneva under the condition that President al-Assad is excluded from any transitional government, which constitutes a major obstacle to the initiation of the process as the Government stated it will not enter discussion if this demand is upheld. The peace dialogue has been repeatedly postponed and will not go ahead as planned in November. To date, the overall number of Syrian refugees is over 2.2 million and the number of people in need in the country stands at 9.3 million.

In the **Philippines**, Category 5 Typhoon Haiyan made landfall on the east coast on 8 November and affected more than 11.3 million people across nine regions. To date, 670,000 people are displaced, and local authorities reported 1,774 deaths. Numbers are expected to increase as more affected areas become accessible. On 12 November, the tropical depression Zoraida hit some areas affected by Haiyan, hindering rescue efforts.

As of early November, 2,770 cholera cases have been recorded in **Nigeria** in 2013, which represents a five-fold increase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More than 600 new cases were reported in October only, and the outbreak has cost at least 60 lives so far.

Last Updated: 12/11/2013 Next Update: 19/11/2013

<b>Severe humanitarian crisis</b>	
Algeria	Mauritania
Burkina Faso	Niger
CAR	Somalia
Chad	South Sudan
DRC	Sudan
Haiti	Syria
Mali	Yemen
<b>Humanitarian crisis</b>	
Angola	Malawi
Cameroon	Myanmar
Ethiopia	Nigeria
Iraq	oPt
Kenya	Pakistan
Lesotho	Zimbabwe
Madagascar	
<b>Situation of concern</b>	
Bangladesh	Laos
Bolivia	Lebanon
Burundi	Namibia
Cambodia	Paraguay
Colombia	Philippines
Djibouti	Senegal
Jordan	
<b>Watch list</b>	
DPRK	Eritrea

In mid-October, Category 2 Typhoon Nari, locally known as Santi, affected central Philippines, north of Manila, causing important floods and affecting over 900,000 people, including over 71,000 displaced, in Central Luzon and Ilocos regions. As of 16 October, 15 people had reportedly been killed by the disaster that also damaged over 59,000 houses, as well as roads, bridges, and crops according to authorities.

In late September, monsoon rains worsened by Typhoon Usagi, locally known as Odette, and Tropical depression Paolo pounded the country with the six provinces of Bataan, Zambales, Rizal, Batangas, Cavite, and Occidental Mindoro being affected. As of 27 September, OCHA reported that Typhoon Usagi and the monsoon rains had affected over 600,000 people, including over 120,000 displaced, and left 30 dead since 23 September.

Access: As reported by OCHA, access to the areas affected by Typhoon Haiyan remained challenging as of 11 November. Extensive damages to local infrastructures, notably to roads and the airport, continue to hamper the humanitarian response. After the airport's air traffic control and fuel storage facilities were damaged, only military planes are able to operate.

According to local sources, insecurity is rising in the areas affected by Haiyan while an aid convoy was attacked en route to Tacloban was reportedly attacked on 12 November.

On 31 October, humanitarian organisations reported that assistance to the areas affected by the Bohol earthquake remained hampered as a result of damages to roads and bridges.

**Health:** On 12 November, WHO reported that the health needs resulting from tropical Typhoon Haiyan were significant. Many local village health centres were reported totally destroyed and the remaining ones remain overcrowded, struggling to deal with the mounting number of injured while the general population now lacks access to basic healthcare.

Meanwhile, IFRC reported that cases of diarrhea had already been recorded in Tacloban due to the lack of safe drinking water.

According to OCHA, congestion in the evacuation centres hosting IDPs in Zamboanga remains a significant problem. The WASH cluster reported that 53% of water samples collected from storage tanks and jerry cans in evacuation centres tested positive for bacteria (coliform).

As noted by local health authorities, an epidemic caused by water contaminated with rat urine has hit a flood-ravaged region in the north of the country. To date, six people were killed by the ongoing epidemic, and 132 people were affected by leptospirosis in and around the northern city of Olongapo.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Health, 1,528 dengue cases were reported in the first quarter of 2013 in Soccsksargen region, of whom 689 (41% of cases) are children <10. In Koronadal city, South Cotabato province, the municipal government declared a state of calamity on 27 June after a dengue outbreak was declared in the town. According to authorities, 239 dengue cases had been recorded as of 8 June, more than the 159 cases recorded in 2012. Dengue has also surged in central Philippines, particularly in the province of Iloilo, south of Manila, where the number of people affected is already 71% higher than the number recorded for the same period in 2012.

higher than the number recorded for the same period in 2012.

**WASH:** On 11 November, OCHA reported that both access to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were of huge concern in the areas hit by Haiyan.

Updated: 12/11/201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OODS, FOOD INSECURITY**

Highlights

No new development this week. Last update was on: 23/09/2013.

No current data on child mortality, food security, food price levels, and the general magnitude of humanitarian needs is available. Therefore, DPRK is not included in the Global Overview prioritisation.

Political and Security Context

**Political Context:** On 17 September, UN human rights investigators released a report that documented human rights abuses of inmates in North Korea's prison camps suffering from starvation, torture, and other unspeakable atrocities. The inquiry, based on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exiles, came after pressure from Japan, South Korea, and Western powers to investigate and begin building a case for possible criminal prosecution. The report was rejected by Pyongyang and may strain relations betwee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have only lately begun to improve.

On 5 September, North Korea agreed to restore a cross-border military hotline with South Korea, in a sign of easing tensions between the rival states. The line had been shut down in early spring.

On 14 August,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to reopen the joint industrial park in Kaesong after a series of talks concerning this rare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announced on 10 September that the facilities would be reopened. In April, Pyongyang pulled its 53,000 workers out of the park at the height of tensions with Seoul and Washington over its nuclear military programme. On 7 August, Pyongyang announced that it was ready to reopen the joint industrial zone. The statement came only an hour after Seoul, exasperated by the North's lack of responsiveness, signalled its willingness to let the facility close definitively. Prior to closing, Kaesong was a rare source of hard currency for North Korea.

The reopening of Kaesong appears to be a step toward improving Pyongyang's relations with the West. After the soaring of the relations between Pyongyang and the West in early spring, relations with Seoul improved after an unexpected reversal on 6 June from Pyongyang, which proposed opening a dialogue. On 9 June, North and South Korean officials held their first talks in years in a positive end to months of military tension.

On 27 June during a meeting betwee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Park Geun-hye in Beijing. Chinese authorities agreed to push for new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nd appeared to favour a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umanitarian Context and Needs**

**Disaster:** In mid-July, heavy seasonal rain resulted in flooding in many parts of DPRK. Particularly affected are the provinces of North and South Pyongan. According to the Red Cross, Anju City, in South Pyongan province, was 80% flooded after the Chongchon River caused embankments to break on the morning of 21 July.

Noted by OCHA on 23 August, floods in DPRK have affected 800,000 people and left almost 49,000 homeless. Farmland has been inundated with at least 10,000 hectares affected, and 1,000 hectares of crops destroyed. Damage to agricultural land is extensive with up to 40% of the land in Paichon county, including 80% of paddy, affected. An assessment conducted by the Health Cluster on 6 August documented damage to roads, bridges, houses, and public buildings, limiting the access of affected persons to basic health care and servic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iarrhoeal diseases was reported due to extensive damage to the water system. An estimated 678,000 people need basic health care, essential drugs, and hospital supplies for life-saving interventions.

On 9 August, authorities reported that the floods affected 73 counties and caused severe damage in 22 counties. Over 11,000 buildings were reportedly damaged. The number of affected was given at 788,000 people, including 56,000 children <5 and 14,800 pregnant women. In early August, authorities estimated the death toll at 33 dead with 18 people still missing. An estimated 59,000 people were displaced. According to WFP, IDPs are suffering from a lack of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This comes after flooding and a subsequent typhoon in July and August 2012, which affected roughly 700,000 people, damaging health facilities and reducing access to primary and secondary health care.

**Access:** Humanitarian access to the country is limited. In early June, WFP approved a new two-year operation for DPRK starting on 1 July and targeting 2.4 million people, almost all children and pregnant and nursing women, with about 207,000 MT of food assistance.

**Food Security:** Little up-to-date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n DPRK. According to an August OCHA report, an estimated 16 million people, of a total population of 24.6 million, are chronically food insecure and an estimated 2.4 million people need food assistance. OCHA further reports that although the humanitarian situation has improved slightly over 2013, the structural causes of vulnerability persist and external assistance is needed, notably targeting the most affected northeastern provinces.

Despite the UN reporting that the main 2012 harvest and 2013 early season crops will see a 10% increase compared to a year earlier, which allegedly should result in the smallest cereal deficit since at least the early 2000s, the food security situation remains grim. According to OCHA, the lack of agricultural inputs (seeds, fertiliser and plastic sheets) remains the main challenge for food production.

**Health and Nutrition:** Despite a slight improvement, malnutrition rates continue to be alarming. According to the 2012 National Nutrition Survey quoted in OCHA's August 2013

report, the chronic malnutrition (stunting) rate among children <5 is 27.9%, while 4% remain acutely malnourished (wasting). Chronic under-nutrition is a public health problem and a major underlying cause of maternal and child mortality.

Reviewed: 12/11/2013



**NORTH AMERICA**

**HAITI FLOODS, EPIDEMIC, HURRICANE**

**Highlights**

No new development this week. Last update: 29/10/2013.

**Political and Security Context**

Riot police in Haiti broke up an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attended by thousands of people to mark the anniversary of the 1991 ousting of the former President Aristide on 1 October. A small group of protesters responded by setting ablaze barricades that blocked a major thoroughfare through the heart of downtown Port-au-Prince. Haiti was to have held legislative and local elections in 2011, but infighting among various government branches has delayed the vote. The current head of state, Martelly, has said that elections will be held this year. However, this seems unlikely to happen before end 2013.

**Humanitarian Context and Needs**

**Displacement:** As of 22 October, nearly 3½ years after the earthquake, an estimated 172,000 people remained displaced in Haiti, according to IOM, 107,000 fewer than reported in early July. This is the highest decrease in the IDP population since April 2012. Between July and September, 46 IDP sites have closed. In June, the Shelter and 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Cluster anticipated the number of IDPs to further reduce to 211,000 by December 2013; this has now been exceeded.

Currently, 306 IDP sites and camp-like settlements host the remaining IDPs. Of the 306 sites, 72 (24%) are reportedly on public land, while 75% (229) are on private property. The status of the remaining four sites could not be determined by IOM. The situation in the sites on private land is problematic with 75,000 IDPs possibly facing illegal forced eviction